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로마서 15:4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는 인내하며 아픔의 시간을 딛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 국가들은 열악한 의료적, 경제적 환경으로 큰 불안 속에 있지만
성경을 찾는 사람들은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혼란 속에서 말씀의 위로와 소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성경을 보내주세요!

후원 문의 080-374-3061(수신자부담) 팩스 : 02-2103-8896 / www.bskorea.or.kr

후원 계좌 수협은행 033-01-085327 ▶ 송금 후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금주 : 대한성서공회)

 (재)대한성서공회

성서한국

THE KOREAN BIBLE SOCIETY NEWS

2020년 여름 제66권 2호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불안 속에 있는
아프리카에 성경을 보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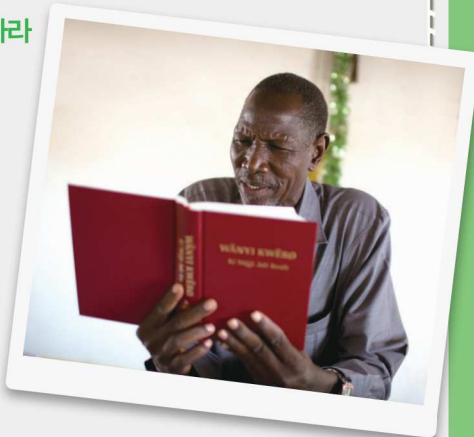
 (재)대한성서공회

대한성서공회 성경 기증 프로그램

THE KOREAN BIBLE SOCIETY

선교사가 오기 전에 이미 복음이 전해진 나라

130여 년 전,
한반도에 서양 선교사가 입국하기 이전에
한글 성경이 번역, 보급되면서
한국교회가 시작되고 형성되었으며,
한국교회는 성경을 중심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우리가 한글 성경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지구촌 이웃들에게 성경을 보급하는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회원님이 보내주신 현금, 이렇게 사용됩니다.



첫 번역 성경 프로젝트 지원

아직도 자신의 모국어로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부족들이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첫 번역 성경'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미자립 성서공회 성경 지원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인 이유로 성경을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성경을 보급합니다.



문자교실 & HIV/AIDS 치유 프로그램 지원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문자교실을 통하여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돕고,
에이즈 예방과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성경을 보급합니다.



국내 성경 지원

국내 미자립교회, 군 장병, 북한이탈주민 등에 성경, 신약, 단편, 전도지 등을 보급합니다.

교회와 후원 회원들께서 보내주시는 현금은 생명의 말씀을 구하지 못하는 국내와 지구촌 이웃들에게 성경을 보급하는 사역에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서한국

2020 여름 제66권 2호

- 02 포토에세이
내 전부를 바칠 귀한 말씀
- 04 2020 상반기 성서사업 보고
- 06 커버스토리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기 속에서
성경을 기다리고 있는 아프리카
- 10 성서공회 운동을 위한 기도
아프리카 지역을 위한 기도
- 12 2020 해외성서 기증 현황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68개국에 성경을 보냅니다!
- 14 성경을 받은 사람들
과테말라 '아치어' 첫 성경전서를 봉헌하다
- 16 말씀을 만나다
악기들과 음악
- 18 현장 이야기
위기속에서 말씀으로 돌아오다
- 20 코로나19 속에서 전해진 성경
- 22 세계성서공회연합회 '함께하는 기도'
- 23 후원 이야기
- 24 대한성서공회 소식
 1. 제133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다
 2. 대한성서공회 「대한성서공회사 III」 발간하다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의 설립 목적은 비영리적으로 기독교 성서를 번역, 출판, 반포하는 데 있습니다.

본 대한성서공회는 세계성서공회연합회(United Bible Societies)의 회원국으로서 법제계적인 협조를 통하여 누구나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기가 낼 수 있는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발행인 겸 편집인 : 권익현
- 발행처 :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 주 소 : 본사 (06734)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반포센터/홍보진흥본부(모금, 홍보)
(17083)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보라2로 197
출판센터 (10844)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엘지로 344번길 110
- 회원문의 : 080-374-3061(수신자 부담)
- 성경구입 및 전도지 문의 : 02-2103-8846~7
- 지로번호 : 7511327
- 발행일 : 2020년 6월 30일
- 인쇄인·인쇄처 편집 : (주)타라그래픽스
- https://www.bskorea.or.kr
인터넷으로 성경문과 성서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 본지는 도서집지 윤리실천 강령을 준수합니다.(비매품)
- 성서한국을 e-mail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 성경을 얻기 위해 수확한 콩을 가져온 한나 할머니



내 전부를 바칠 귀한 말씀

케냐 엠부 지역,
기다리던 키엠부-김베레어 성경이 봉헌되었습니다.
82세의 한나 할머니는 봉헌식에 참여하기 위해
6시간을 걸어왔습니다.

성경을 살 돈이 없었던 한나 할머니에게
무료로 성경을 나누려 했으나
한나 할머니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저 얻지 않겠다며
수확한 콩을 내밀었습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긴 한나 할머니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받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위기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성경을 보냅니다”

권의현 사장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세계 각국이 이동 제한을 하고 폐쇄 조치를 함에 따라, 성서보급이 중단되거나 심각하게 위축되면서 적지 않은 자매 성서공회들이 상당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계 155개 성서공회들 중, 당장 직원들의 임금을 지불하기 어려운 ‘심각’ 단계의 성서공회가 30개, 이동 제한 조치가 약 3개월 정도 지속될 경우 성서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위험’ 단계의 성서공회가 65개입니다. 60개의 성서공회만이 이 어려운 시기를 당분간 견뎌 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 본부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 성서공회들이 성서사업을 유지 혹은 재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연대 기금(Solidarity Fund)’을 조성하도록 하고, 본 공회가 참여해 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국내 성서 보급 사업

금년 상반기에는 지난해의 같은 기간에 비해서 73,464부가 감소한 261,326부의 성경을 보급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개역개정판 성경은 218,047부가 보급되어, 지금까지 본 공회를 통해서 10,516,800부가 보급되었습니다. 그동안 국내 성경 출판사들이 본 공회로부터 개역개정판 본문 사용에 대한 저작권 허락을 받아 출판한 주석 성경 12,955,175부를 포함하면, 개역개정판 성경은 총 2천 3백 5십만여 부가 보급되었습니다.

해외 성서 보급 사업

금년 상반기에는 80개 나라에 108개 언어로, 지난해의 같은 기간보다 238,361부가 증가한 2,189,601부의 성경을 제작하여 보급하였습니다. 1973년 해외 성서 보급을 시작한 이래 총 1억 8천 2백여만 부를 제작하여 보급

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로 세계 각 성서공회들의 재정 위기가 심화되면서 하반기에는 성서 제작 요청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외 성서 기증 사업 및 이를 위한 모금 사업

본 공회에서는 세계성서공회연합회에 지원하는 재정적 지원과는 별도로, 금년 상반기에 총 35개 나라에 211,054부의 성경을 그 나라의 언어로 제작하여 기증하였습니다. 중남미의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온두라스 파나마 등 14개국, 아프리카 지역의 가나 말라위 기니-비사우 상투메 등 14개국,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남태평양 미얀마 등 3개국, 유럽 중동 지역의 이스라엘 터키 등 4개국에 성경을 지원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국 교회와 찬성 회원들께서 해외 성경 보내기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헌금을 보내주셔서, 지난해의 같은 기간보다 약 4천 3백여만 원이 증가한 22억 1천여만 원이 답지하였습니다. 카메룬성서공회의 경우, 보급할 수 있는 성경이 바닥이 난 상황에서 본 공회에서 기증한 성경으로 성경 보급을 유지할 수 있다고 알려 왔습니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등의 성서공회들은 본 공회에서 기증한 성경으로 성경을 필요로 하는 교회와 가정들에 성경을 보급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 왔습니다. 본 공회는

한국 교회와 협력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성경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한글 성경전서〉(가칭) 번역

2012년 12월, 젊은이들을 위한 〈새한글 성경전서〉(가칭)의 번역을 시작한 이래 금년 4월 말 기준으로 기초번역과 1차 번역 검토가 완료되었으며, 문장 검토는 80%, 기초번역자들의 재검토는 48%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해설, 그림, 사진, 지도, 영상 자료들을 다양한 매체로 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 내용은 대한성서공회 제133회 정기이사회에서 보고한 것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한눈으로 보는 2020 상반기 성서사업 보고



국내성서 보급

261,326부의
성서 보급



해외성서 보급

80개 나라에 108개
언어로 2,189,601부의
성경을 제작하여 보급



해외성서 기증

35개 나라에
211,054부의 성서 기증



후원금액

약 4천 3백여만 원이
증가한 22억 1천여만 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기 속에서 성경을 기다리고 있는 아프리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하며 우리는 바이러스의 최전선에서 불안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과제들이 남았지만 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바이러스 종식에도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 사이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공포가 현실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존재를 알게 된 후 아프리카의 국가들은 국경을 폐쇄하기 시작했습니다. 7년 전 에볼라 바이러스가 남긴 상처를 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수많은 사상자를 내며 아프리카 대륙을 뒤흔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계의 위협을 당했으며, 고아가 된 어린이들과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고통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간 통행을 제한하고 학교를 휴교하는 조치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창궐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늘어나는 확진자를 제대로 검사하는 것조차 어려웠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해 집에만 있기에는 식량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의 회원국 중 아프리카에 위치한 성서공회들이 현장의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당장 성서보급의 어려움이 있으며 장기적으로 성서공회의 존립을 걱정해야 하는 국가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사람들이 더욱 말씀을 찾고 의지하는 은혜가 있음도 알려왔습니다.

아프리카 현장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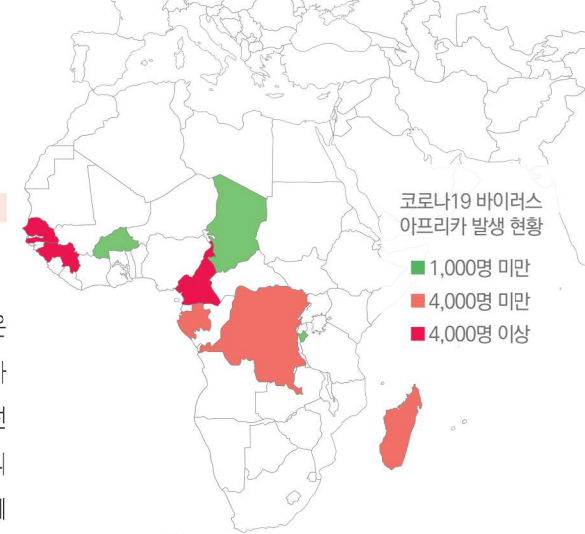
부르키나파소

정부 각료 6명이 감염이 되었고, 정부도 온라인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2개가 넘는 도시가 격리되었고, 저녁 9시부터 오전 4시까지 전국적인 통행금지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교회 모임, 시장과 기타 공공장소는 최근에야 문을 열었습니다. 식당에서는 포장 주문만 가능합니다.

성서공회에서 진행하던 문자교실은 중단되었고 모든 성경기반 회복 프로그램은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고통 속에서 성경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룬디

실제적인 감염 사례는 다른 곳에 비해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정기적인 정보를 접하기 어려워 불안한 상황입니다. 공항과 국경은 폐쇄되었고 항공기 운항도 중단되었습니다. 국제 학교 두 곳이 학교를 폐쇄하자 국내 감염이 적은 상황에서 이런 조치를 취한 이유를 제시할 것을 요구 받았습니다. 정부 권고 이상의 보호 조치를 시행하는 것도 압력을 느끼는 상황입니다. 대한성서공회에서 제작한 성경들이 국경을 넘어 들어오는 통관 절차가 무사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카메룬

상점들이 문을 닫아 많은 사람들이 생필품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유행 때보다 상황이 심각해 보입니다. 나아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열악한 보건체계 속에서 바이러스가 창궐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가봉

대부분의 이동이 제한되었고 통행금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서점과 교회는 문을 닫았습니다. 성서공회도 최소한의 직원들만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서비스가 좋지 않아 재택근무가 원활히 이루어지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불확실한 앞으로의 상황이 걱정입니다. 대부분 하루를 벌며 하루의 생계를 이어나가는 사람들은 보건 위기보다 사회경제적 위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식량 위기가 오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니

3월 19일 대통령이 국가 위기 상태를 선포하였습니다. 학교와 식당, 교회도 모두 폐쇄되고 야간 통행이 금지되었습니다. 정부 예방 조치를 준수해 일하고 있지만 계획했던 대부분의 성경기반 프로젝트들은 보류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위기 상황 속에서 교회에 보급할 보건 키트와 성경을 준비하며 교회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려고 합니다. 이 불확실한 시기 속에서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

코로나19로 인해 의료진과 군인만 이동이 허가되고 학교와 사무실들은 폐쇄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말라가시어 해설성경 번역자들은 재택근무로 번역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자교실을 비롯한 프로젝트들은 모두 중단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두려움과 불안에 싸여있는 사람들에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콩고민주공화국

수도 킌사사가 봉쇄되며 교회와 학교가 모두 폐쇄되었습니다. 최소한의 접촉을 위해 서공회 직원들도 그룹을 나누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4개의 번역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지만 대기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세네갈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이 폐쇄되었지만 믿음을 잃지 않고 가정예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성경을 보급하려 하지만 경제가 급격히 악화되며 큰 결실이 없습니다. 더 상황이 안 좋아진다면 국가 전체 봉쇄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차드

성경 번역 책임자가 카메룬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국경이 봉쇄되어 복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를 폐쇄하는 강경한 국가 조치 가운데서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차드에는 온라인 banking이 잘 이용되지 않으며, 사람들은 디지털 경제활동에 대한 신뢰가 없어 재정적으로 막막한 상황입니다.



▲ 코로나19 바이러스 속에서 전달된 성경

세계적 전염병은 이제 가장 열악한 땅에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하루에도 여러 번 가까운 사람들의 사망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망자에 시신을 매장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또 영어, 불어 등의 공용어로 이루어지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소식은 수많은 방언을 사용하는 부족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정보입니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의 마음은 불안과 공포로 뒤덮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찾고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서공회들을 통해 전달되는 성경은 바이러스로 불안에 떠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것입니다. 📖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에 전달하는 컨테이너 한 대에는 10,000권의 성경을 채울 수 있습니다. 10만 원을 헌금하시면 20명의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컨테이너에 성경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후원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후원 문의 ☎ 080-374-3061(수신자 부담), 02-2103-8861~2

아프리카 지역을 위한 기도

① 알제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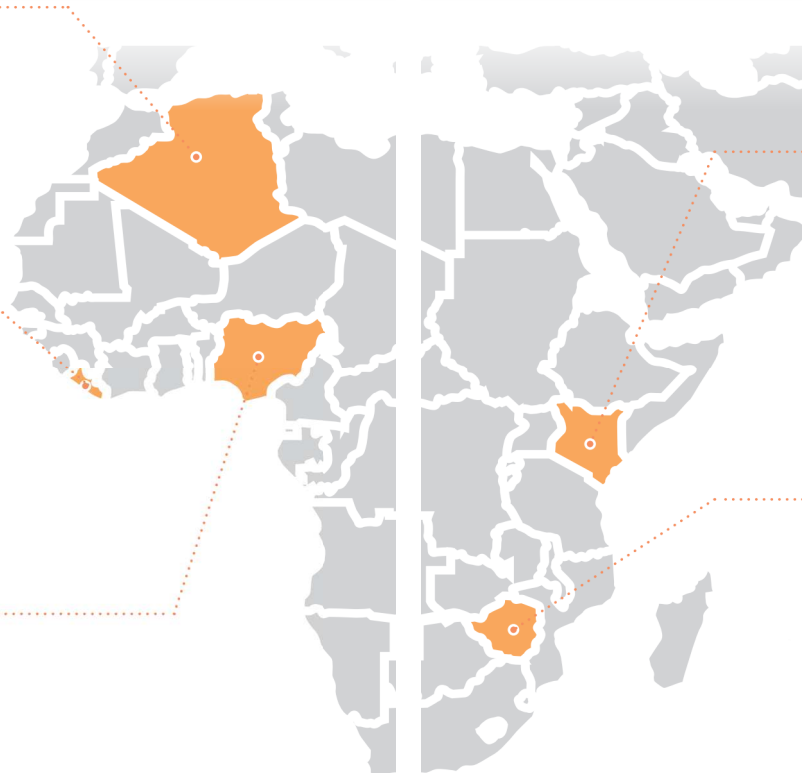
교회들과 성서공회에 대한 정부의 종교적 압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신교 교회 5곳 이상이 문을 닫았고, 외국 성직자들에 대한 알제리 입국 비자가 거절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성서공회의 활동을 완전히 제한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알제리성서공회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② 라이베리아

라이베리아에 있는 지역 교회들과 긴밀한 관계를 세워서, 교회들이 성서공회 사역의 의미와 필요성을 깨닫고 사역에 협력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성서공회의 성서보급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라이베리아의 쇠약한 경제를 다시 세워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③ 나이지리아

진행 중인 성경 번역 프로젝트가 빠르게 완수되어 나라 곳곳에서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기 말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보급된 성경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④ 케냐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성서공회가 다음 세대, 젊은이들과 어린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성경 출판 프로젝트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⑤ 짐바브웨

짐바브웨에는 16개의 공식 언어가 있으며, 지금까지 3개 언어로만 성경이 번역되었습니다. 모든 짐바브웨 사람들이 자기 말로 번역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빠른 성서 번역과 이를 위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짐바브웨의 심각한 경제 상황이 회복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68개국에 성경을 보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몸과 마음이 힘든 시기에도
성경을 보낼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시는
후원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프리카 지역 29개국

가나, 가봉, 기니 비사우, 나미비아,
남수단, 니제르, 라이베리아,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잠비크,
베냉, 부룬디, 부르키나 파소,
상투메, 앙골라, 에리트레아,
에스와티니,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카보베르데, 케냐,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유럽 중동 지역 16개국

러시아, 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세르비아, 시리아, 아랍-이스라엘,
알바니아, 알제리,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이스라엘,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터키, 팔레스타인



미주지역 16개국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서인도제도, 아이티,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쿠바,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아시아 태평양 지역 7개국

남태평양, 네팔, 몽골, 미얀마,
인도, 캄보디아, 파키스탄

•붉은 글씨 - 지금까지 성경이 발송된 국가 (2020.5.22 기준)

과테말라 ‘아치어’ 첫 성경전서를 봉헌하다

*2019년 9월 본 공회에서 아치어 성경 4,500부를 제작하여 과테말라에 보급하였습니다.

일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된 첫 성경전서를 맞이하기 위해 산악지대 쿠불코 지역 마을 체육 회관에 모였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아치어 성경의 도착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마을을 행진하였으며, 일부는 특별하게 장식된 차를 몰기도 하고, 일부는 화려한 현수막과 노래를 부르며 성경을 맞이하게 된 기쁨을 이웃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 아치어 성경을 펼쳐 보이는 트리니다드 로페즈

“
제가 받은 첫 성경이에요
”

트리니다드 로페즈는 봉헌식에 참석하여 자신의 언어로 첫 번역, 출간된 성경전서를 손에 쥐고 환하게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과테말라는 언어가 다양한 나라로 모든 언어 사용자들에게 성경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큰 과제입니다.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언어만 25개로 그 안에서도 방언이 있어 과테말라 전역에 걸쳐 54개가 넘는 언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쿠불코 지역의 아치어는 이런 소수 언어 가운데 하나로, 과테말라의 소수 민족 언어들 가운데 10번째로 성경이 번역되어 출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기적의 말씀

수도 과테말라시로부터 200km 떨어진 쿠불코 마을과 그 인근에 거주하며 아치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5만 1천 명이 넘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농경 생활을 하는 농부로 지역에 가뭄이나 홍수가 발생하면 큰 타격을 입습니다. 이중 약 60%는 절대 빈곤 상태로 하루 1불 이하의 돈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언어로 된 성경전서가 보급되기를 간절히 기다려왔고, 이런 환경에서 성경전서의 봉헌은 기적과 같았습니다.

“소수민족 언어로 번역된 성경이 봉헌되기까지의 과정은 기적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그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과테말라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라고 세계성서공회연합회 사역 담당 마르코 마르티네즈는 고백합니다.

66년 전에 처음 시작된 아치어 성경 번역은 미국 개혁신교회의 도움으로 1962년에 단편성서, 1984년에 신약전서의 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2011년, 쿠불코의 아치어 대표들이 과테말라성서공회에 구약전서의 번역과 신약전서 개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수년 동안 많은 이들이 아치어로 성서를 번역하는 일에 참여하였고 마침내 성경전서가 봉헌될 수 있었습니다.

문자 교실

아치어 성서 번역은 사람들이 고대하던 성경전서를 완성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여

러 긍정적인 변화들을 가져왔습니다. 이 지역의 높은 문맹률을 퇴치하기 위하여 수년 동안 학교와 교회에서는 문자교실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마카리오 후아레스는 공동체에서 번역 작업을 추진하며 그 기간 동안 번역팀이 만들어낸 다양한 아치어 성서 자료들을 활용하여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활용하여 아이들에게 글을 읽고 쓰는 것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모든 어린이가 우리 말로 글을 읽고 쓰는 법을 배워,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하기를 바라며, 교회에 와보지 못한 많은 어린이들이 성경 이야기와 이제는 출간된 성경전서를 통해 조금씩 성경에 대해 배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치어 성경이 과테말라 사람들과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진행 중인 과테말라 다른 언어들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쿠불코 마을을 행진하며 새로 봉헌되는 성경을 기념하는 사람들



악기들과 음악

소고 치며 춤 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시편 150:4-5)

구약성경의 <시편>에는 감사의 노래, 탄원의 노래, 지혜의 노래 등 많은 노래가 모여 있습니다. 시편에는 악기들에 대한 흥미로운 정보와 각 노래를 연주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나팔, 불 나팔

나팔은 동물의 뿔(숫양 뿔)로 만들었습니다. '쇼파르'라고 하는 이 불 나팔은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이 새해나 그들의 명절인 속죄일에 사용합니다. 여리고 정복 이야기(수 2-6장)에 이 숫양 뿔 나팔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도시의 성벽이 무너질 때까지 칠일 동안 이 불 나팔을 불어야 했습니다. 나중에는 금속으로 만든 나팔들, 곧 '하초츠라'도 성전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제금과 심벌즈

리듬에 맞추어서 손뼉 치듯이 " 짹!" 하는 맑은 소리를 내기 위하여, 금속으로 만든 제금과 심벌즈를 이용했습니다. 제금은 손가락으로, 심벌즈는 손으로 연주했습니다.

시스트럼

시스트럼(딸랑이의 한 종류)은 매우 오래된 악기였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미 기원전 3,000년에 시스트럼을 들고 있는 이시스 여신을 표현했습니다. 처음에는 진흙으로 빚은 작은 조각들을, 그다음에는 금속으로 만든 것을 작은 막대기에 붙이고 테를 돌렸습니다. 시스트럼으로는 리듬을 주고 딸랑딸랑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수금(리라)

수금은 현(줄)이 달린 악기였습니다. 수금은 현을 뜯거나 막대기로 현을 쳐서 연주했습니다. 이집트의 한 고대 벽화는 유랑하는 유목민들의 모습을 보여 줍니다. 그 유목민들 가운데 한 명이 행진하면서 수금 같은 악기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수금은 또한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앉아서도 연주할 수 있었습니다.

수금(하프)

하프(또한, 치터)는 손가락으로 뜯어서 켜었습니다. 사람들은 현으로 동물의 힘줄을 이용했습니다. 하프는 흥분한 사울왕을 하프 연주로 진정시켜야 했던 소년 다윗을 떠오르게 합니다(삼상 16장). 다윗의 하프는 아마도 '네벨', 곧 15개의 현이 있고 동물 가죽으로 만들었으며 울림통이 달려 있어서 소리가 꽤 크고 손가락으로 뜯어 연주하는 악기였을 것입니다. 🎸





*2019년 10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실뱅 은젠돌레 총무와의 인터뷰를 정리한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말씀으로 돌아오다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실뱅 은젠돌레(Sylvain Ndjendolé) 총무 인터뷰

중앙아프리카공화국성서공회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 지난 52년간 사역해 왔습니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성서공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항상 고통과 위기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2000년부터 지금까지의 시기만 보더라도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무슬림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정부는 성서공회 사무실을 파괴하였고, 다른 건물로 이주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성서공회에서 보유한 자산은 압류당하거나 처분되었고, 새롭게 구한 사무실은 일곱 번이나 약탈 당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고난의 시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성서공회와 함께하심을 보았습니다.

만약 성서공회가 이윤을 추구하는 일반적인 기업이었다면 문을 닫았을 겁니다. 그러나 성서공회는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고 선포합니다.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계속되는 폭우로 3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100만 명이 피해를 입은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홍수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 위기의 때에 우리는 문자 교실, 교도소 방문,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과 같은, 사람들의 전인적인 치유를 돕는 프로젝트를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홍수 피해를 겪은 가족의 간증



▲ 홍수 피해에 대한 트라우마로 성경기반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부

“예상하지 못했던 홍수가 찾아왔고, 저희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이 무너지고, 카누가 떠내려가고, 아내의 작은 가게마저 물에 잠겼습니다. 가족들은 절망했고 삶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서공회에서 진행되는 성경기반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저희 가족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 속에 저희를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모든 소유물들이 물에 잠겼지만, 하나님은 저희 가족의 생명을 구해주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감사한 마음으로 기증해 주신 성경책을 읽으며, 말씀의 위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시련 속에서도 저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위기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위험한 지역을 안전하게 지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사역을 위해 무장세력이 관할하는 지역으로도 이동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지역에는 남수단, 콩고민주공화국 북부 지역과 중앙아프리카 일부 지역을 지배하는 우간다 반군 세력인 신의 저항군이나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북동, 북서지역의 무슬림계 반군 조직이 활동하는 곳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전인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

하여 그 지역으로 가는 위험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더 많은 성서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07년에는 성서공회에서 연 약 5천에서 7천 권 가량의 성경을 반포했습니다. 지난 2017년과 2018년에는 성경 반포가 늘어서 연간 약 3만 권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사람들이 성서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크며, 성서공회가 해야 할 일이 여전히 많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로마서 15:4하)

코로나19 속에서 전해진 성경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이동 제한과 폐쇄 조치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사라져버렸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습니다.

학교와 직장엔 나갈 수 없고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열악한 의료 환경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더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성서공회들 또한 불안정한 상황에서 사역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동이 제한되고 격리된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은 더욱 간절한 필요로 다가왔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전해진 성경이 있었습니다.

보급된 성경은 말씀이 간절했던 이들에게 단비가 되어주었습니다.

여전히 어려움이 남아 있지만 성경의 위로가 가진 힘을 믿습니다. 🌐



#에스와티니



#우크라이나



#상투메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기니 비사우



#몰도바



#쿠바

세계성서공회연합회 함께하는 기도

사랑하는 우리의 아버지
주님의 신실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자,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항상 가까이 계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사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 '함께하는 사랑밭'

〈누에르어 성경〉 5,100부 및
〈딩카 보르어 신약전서〉 2,100부 기증

2020년 4월 1일, '함께하는 사랑밭'(권태일 목사)의 후원으로 남수단과 에티오피아 난민 캠프에 〈누에르어 성경〉 5,100부와 〈딩카 보르어 신약전서〉 2,100부를 보내는 기증식을 가졌습니다.

2011년 수단으로부터 분리 독립한 남수단은 분리 독립 이후에도 남수단 내전이 이어지며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아픔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이들을 위한 물질적, 영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한편 누에르 부족은 남수단과 에티오피아에 걸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에티오피아 캄벨라 지역의 누에르 부족 난민 캠프에는 약 40만 명의 난민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딩카 보르어 성경〉을 들고 기뻐하는 딩카족 난민들



기증식에서 에티오피아에서 사역 중인 명성의과대학 김성중 부학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누에르 부족 난민캠프의 사역자들이 가장 갖고 싶은 것이 성경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보급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소망을 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며 감사를 전하였습니다.

이번 '함께하는 사랑밭'의 후원으로 에티오피아 누에르 부족 난민 캠프에 3,000부의 〈누에르어 성경〉을, 남수단에 2,100부의 〈누에르어 성경〉과 2,100부의 〈딩카 보르어 신약전서〉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 위로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

1. 제133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다



▲ 제133회 대한성서공회 정기이사회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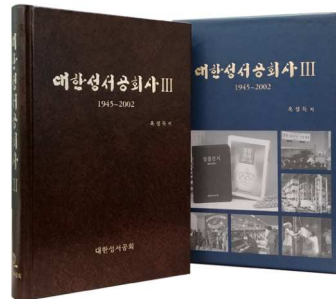
대한성서공회 제133회 정기이사회가 2020년 5월 28일(목), 오전 10시 30분에 서초 성서회관에서 개최되었다. 1부 기도회에서는 박노훈 목사(신촌교회)가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였다.

2부 회무처리에서는 신 이사 중 교단대표로 박태식 신부(대한성공회), 김상현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남상준 목사(기독교한국루터회), 이영훈 목사(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양병희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가 소개되고, 찬성회원 대표로 김순권 목사, 김동권 목사, 문희수 목사, 이선균 목사, 김광년 장로가, 감사로는 정명철 목사가 소개되었다. 이어서 권익현 사장의 사장보고와 사업보고가 있었다.

안건으로는 구세군대한본영 교단대표 장만희 이사 후임으로 이충호 이사를 선임하였다. 신 임원으로 이사에 정하봉 목사, 부이사장에 이정익 목사, 서기에 양병희 목사, 회계에 김경원 목사가 선임되었고, 실행위원에는 김동권 목사, 손인웅 목사, 이용호 목사, 김현배 목사, 이선균 목사, 김순권 목사가 선임되었다. 그리고 호재민 총무를 재선임하였다. 🌐

2. 「대한성서공회사 III」을 발간하다

본 공회는 2020년 4월 30일에, 1945년부터 2002년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대한성서공회사 III」(옥성득 저)을 발간하였다. 본 공회는 1995년에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1910년까지의 초기 역사를 다룬 「대한성서공회사 I」(옥성득 · 이만열 공저, 1993년)과, 일제 식민지 시대를 다룬 「대한성서공회사 II」(류대영 · 옥성득 · 이만열 공저, 1994년)를 발간한 바 있다.



▲ 「대한성서공회사 III」

이번에 발간하는 「대한성서공회사 III」은, 해방과 한국 전쟁 이후 폐허 위에서 본 공회가 재건되고 성장하여 세계적인 성서공회가 된 약 60년의 역사를 다룬다. 교회들이 연합하여 성서 사업을 진행해 온 역사는, 공회 자체의 역사를 넘어 한국과 성서가 만나 형성된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

매일 전하는 성경,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사역에 사랑하는 가족, 지인과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성경을 전하는 일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가족, 지인분들에게 성경을 보내는 기쁨을 선물해주세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후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1



아래의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02-2103-8896)로 전송해 주세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보라2로 197, 대한성서공회 홍보전홍본부)로 발송해 주세요.

02



인터넷 검색창에 **대한성서공회** 입력하신 후,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070-01-0340-570	신한은행 140-009-909678	수협은행 033-01-085327
	우리은행 1005-702-311166	농협은행 355-0025-0990-53	우체국 011916-01-000076
후원문의	KEB 하나은행 630-008603-501 (구,외환은행)	KEB 하나은행 224-910049-47104	송금 후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금주: 대한성서공회)
	Tel. 080-374-3061(수신자 부담)		

성경 보내기 후원회원 신청서

(재)대한성서공회

신청인 (서명) _____

교회명 _____ 직분 _____

휴대전화 _____

집 전화 _____

주소 _____

☐ 우편물거부 ☐ 소식지 이메일 신청

이메일 _____

☐ 매월 1만원 (성경 2권) ☐ 매월 5만원 (성경 10권)

☐ 매월 2만원 (성경 4권) ☐ 매월 10만원 (성경 20권)

☐ 매월 _____ 원 (성경 _____ 권)

신청인(예금주)은 대한성서공회의 선교사역에 후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효성에프엠에스(주)의 CMS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 3자 제공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자동이체 신청을 위해 동의함에 꼭 체크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이체일 ☐ 5일 ☐ 15일 ☐ 25일
(잔고 부족 등의 이유로 미출금시 2회에 한해 재출금)

은행명 _____ (휴대전화번호로 된 계좌 또는 카카오�뱅크 계좌 등록X)

계좌번호 _____

예금주 휴대전화 _____

예금주 생년월일(주민등록증 상) _____

※ 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예금주 (서명) _____

년 월 일